

디자인 센터의 카페테리아 계획안

Design Plan for the Cafeteria in the Design Center

이란표* / Lee, Ran-Pyo

Abstract

This design plan aims at the presentation of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Design Center by making a new image of the cafeteria that is located in the 1. floor.

To create an ambience of intercommunication and relaxation, it must be set up the basic concepts like Mobility, Flexibility, Transparence and Color-Play. As the design solutions :

- first of all the 360 grade reversible and removable dividers are installed around the 5 pillars
-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concepts Mobility and Flexibility the cubic form construct that plays not only a role of a kitchen, but also a role of a counter, is designed to be relocated at one's own.
- the various kinds of seating module and the chill-out zone are introduced to bring out the functionality and the aestheticity simultaneously.
- to make a contrasting image to the glass surface of the yellow-, orange- and red-colored dividers, the black chairs and tables are arranged in the middle.

키워드 : 유동성, 탄력성, 투명성, 색채 작용, 이미지 대비

Keywords : Mobility, Flexibility, Transparence, Color-play, Image contrast

1. 디자인 배경

독일의 하노버는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무역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이다. 2000년 EXPO를 성공적으로 치른 하노버는 하노버 대학의 디자인과 미디어 학부를 하노버 EXPO장에 위치한 디자인 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용도에 맞게 건물 내부의 공간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하노버 디자인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카페테리아는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대강당이 있는 지하 2층에 위치하여 눈에 띄지 않아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방문객들의 근접성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센터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디자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현재 위치해있는 카페테리아의 위치를 바꿀 것인가?
- 새 카페테리아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게 될 대상층은 누구인가?
- 만일 카페테리아의 위치를 1층 창가 발코니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기존의 자판기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디자인 컨셉설정에서 앞서 우선 설문조사 및 행태관찰조사, 공간분석, 주위환경분석 등을 통해 카페테리아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방문객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금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방문객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1층 발코니 밑에 카페테리아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카페테리아를 새롭게 계획하여 디자인 센터 방문객들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학부의 학생, 교수, 직원들을 위한 구심점이자 만남의 장소로 설계하는 것이다.

2. 개요 및 디자인 컨셉

위치 : 독일 하노버시 EXPO Gelände Design Center 1층
용도 : 카페테리아
면적 : 2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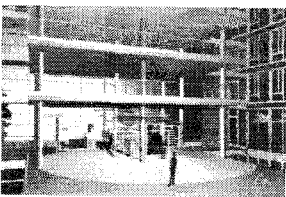
* 정희원,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전공 전임강사

본 디자인은 디자인 센터의 대표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보다 카페테리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래의 카페테리아의 기능인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접촉, 상호소통, 휴식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 창출을 위해 기본 컨셉으로 유동성Mobility, 탄력성Flexibility, 투명성Transparence, 색채유희 Color play 등이 설정되었다.

계획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해결되어야만 하였다. 즉 디자인 센터가 무역 전시장에 위치한 관계로 디자인 센터의 아트리움이 대형 무역전시회 개최시 연회장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이벤트가 열릴 때 카페테리아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치워 1층 전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 때문에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는데 있어 이동가능하고 가변적인 가구요소들을 계획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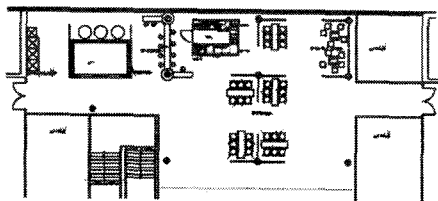


<그림 1> 디자인센터 1층 평면



<그림 2> 카페테리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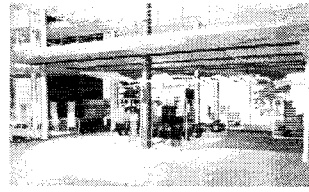
이더의 유리면과 여기에 대조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아르누보 스타일의 검정색 시리즈 7 의자들과 검정 리놀레움으로 마감된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색채대비적인 이미지와 쾌적한 분위기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이 주어졌다.



<그림 3> 카페테리아 평면

3. 디자인 계획

카페테리아는 디자인 센터입구 반대편 발코니 밑에 위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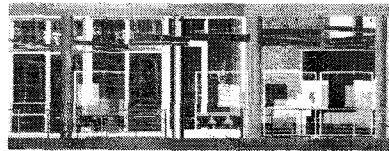
<그림 4> 카페테리아 전경

된다. 카페테리아의 평면은 조닝작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조닝이라는 테마는 디자인 센터의 1층의 기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디자인 요소로 이용되는 기둥에 설치된 디바이더를 중심으로 일반좌석 영역 및 Chill-out zone, 창가 발코니쪽으로 박스 형태의 주방 및 카운터, 그 옆으로는 스탠드 테이블 영역 및 인포메이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5> 전면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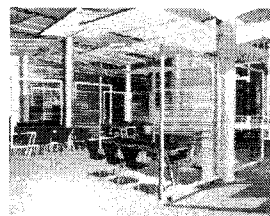
<그림 6> 입면-West



<그림 7> 입면-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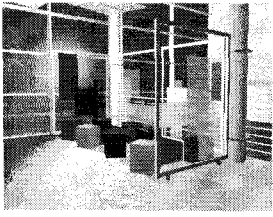
(1) 일반 좌석 영역 및 Chill-out zone

- 회전이 가능한 분리대에 의해 생기는 작은 영역들
- 색채유희: 투명한 유리의 색면들의 겹침
- 색채유희의 대조로서의 검은 테이블과 의자
- Chill-out zone의 형성



<그림 8> 일반좌석 영역

기둥에 설치되는 디바이더는 조닝을 가능케 하여 다섯 개의 영역과 이보다 더 큰 영역을 구성한다. 이동가능한 분리요소는 금속 틀구조와 유리로 이루어져 기둥에 고정된다. 유리에는 투명한 부분과 세 개의 색채면 부분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색채유희가 가능하도록 색채면들을 서로 겹치게 계획한다. 또한 분리요소의 특성은 바퀴가 달려 회전이 가능하며 접히고 펼쳐질 수 있다. 그리하여 여러 크기의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벤트 개최시 분리,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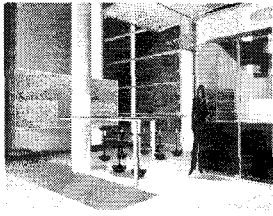


<그림 9> Chill-out zone

이 영역의 가구는 검정색의 데스크탑 리놀레움으로 표면마감된 테이블과 테이블에 맞는 검은 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색을 선택한 이유는 분리요소의 색채유희에 대한 대조로서 설명될 수 있다.

(2) 스탠드 테이블 영역

- 위로 접어 올려 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는 테이블
- 바스툴 슈티츠
- 짧은 체류를 위한 영역
- 인포메이션 영역



<그림 10> 스탠드 테이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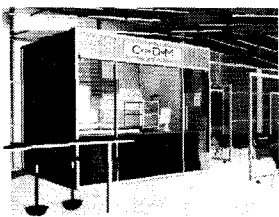
이 영역은 짧은 시간의 휴식을 위해 계획된 곳으로 가구는 금속 스탠드 테이블과 바스툴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측면벽에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어 정보교환도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벤트 개최시 테이블이 위로 접

혀 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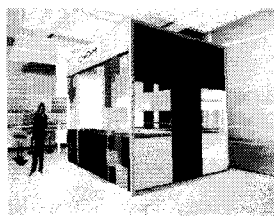
(3) 부엌 및 카운터

- 박스형태
- 기능성과 심미성
- 색채유희: 유리의 색면들의 겹침효과

9m² 크기의 부엌은 철 프레임 구조로 박스형태를 취하고 있다. 측면 벽 재질은 검정색 마감의 MDF이며 왼쪽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오른 쪽면에는 식기반납이 이루어진다. 카페테리아는 음식이 이미 조리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운반하여 식사하는 셀프서비스 형식을 취한다. 주문, 배식, 계산 모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 부엌의 전면에는 분리요소인 가림대와 같이 유리 표면에 나타나는 색채면들의 겹침효과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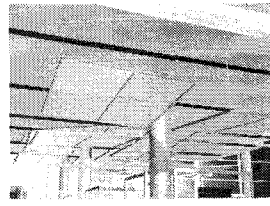
<그림 11> 카운터 전면



<그림 12> 카운터 측면

(4) 천장 및 조명

천장에는 1.25m x 1.25m 크기의 철망으로 구성된 금속틀들



<그림 13>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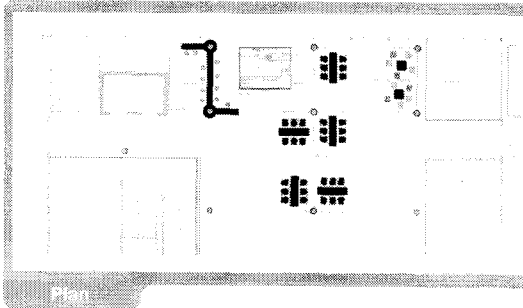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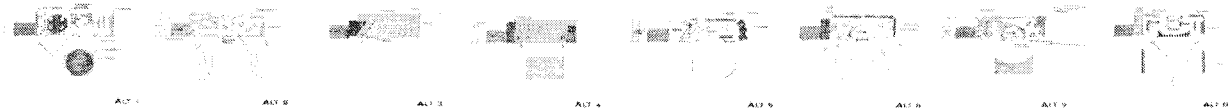
이 매달려 있다. 기울기와 매달린 높이는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는 천장에서 조닝을 반영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스듬하게 그리고 다양한 높낮이로 설치된 금속판은 천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이 금속판들은 물결모양으로 건물의 입구까지 이어진다. 몇몇 판들에는 색채 조명이 설치되어 다양한 빛의 효과로 방문객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디자인 결과

카페테리아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기존의 Expo 전시장에 위치한 디자인센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디자인 목적은 지하2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를 지상 1층의 발코니 밑에 위치시킴으로서 한편으로는 카페테리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성과 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카페테리아의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 센터의 대표 특성을 연출하는데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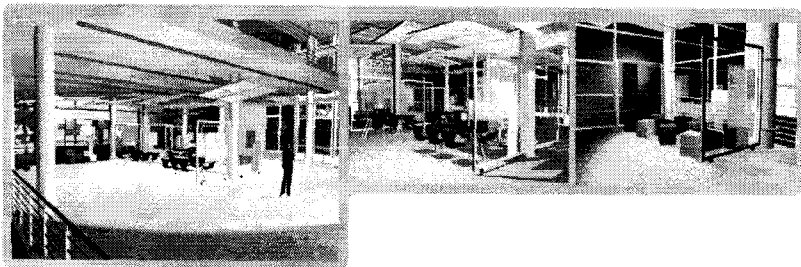
본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센터 방문객들, 디자인과 미디어 학부의 학생, 교수 및 직원들 간의 상호의사소통과 공동의 휴식 공간, 그리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가능케 하기 위해 유동성과 탄력성 그리고 투명성과 색채작용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Design Plan for the Cafeteria in the Desig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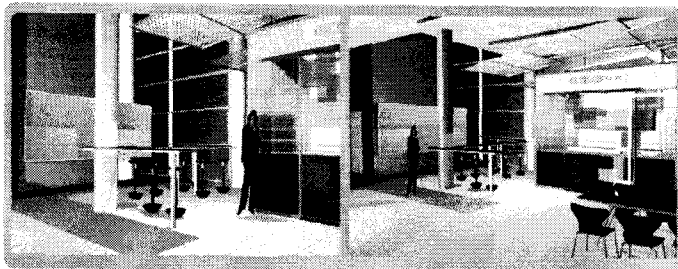
Design Concept : Mobility, Flexibility, Transparence, Color Play

어벤트 계획시 디자인 센터의 1층 공간이 이용되는 조건으로 인하여 여동가능하고 가변적인 기구 및 설치요소를 계획하는 것이 존재된다. 디자인 해결방안으로서 기둥에 360도 회전 가능하고 분리, 재배치 가능한 분리대를 설치한다. 또한 카페테리아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과 편안함이 도와시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식 형태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노랑에서 붉은 색까지의 계열로 구성된 분리대의 유리면과 이에 대조적인 이미지를 위해 검정색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색채대비적인 효과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골격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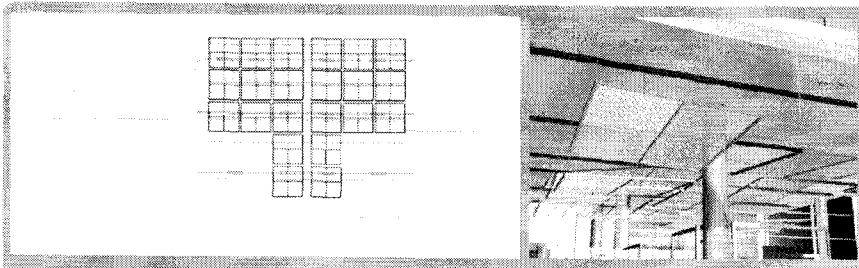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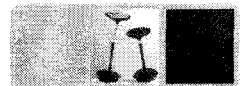
일반좌식 영역

- 회전과 분리가 가능한 분리대에 의해 생기는 작은 영역들
- colorplay: 투명한 유리의 색면들의 경첩
- colorplay의 대조로서의 검은 의자와 테이블
- chill-out zone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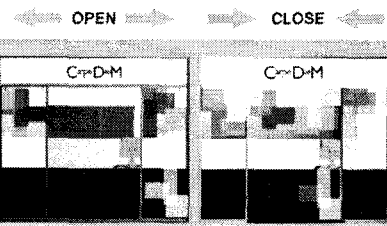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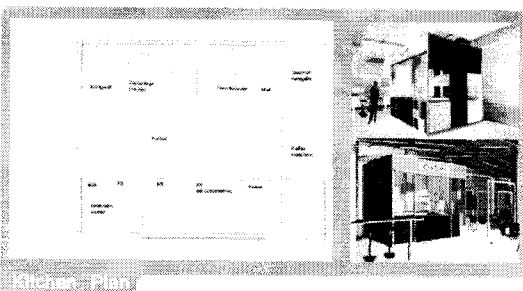


스탠딩 테이블 영역

- 위로 접어 올려 기둥에 고정시킬 수 있는 테이블
- Bar stool 'Stutz'
- 짧은 시간의 휴식을 위한 영역
- 안모해이션 영역



바스틀에게 그리고 다양한 높낮이로 설치된 절명판은 천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절명판은 불필요양으로 건물의 원구까지 이어진다. 몇몇 금속판 들에는 색채조명이 설치되어 다양한 빛의 효과로 방문객들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콜프래임 구조의 Box 형태
- 기능성과 심미성
- colorplay: 유리표면의 색채의 경첩 효과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전공 이란표